

1980년대 북한 정치신분제에서 세대 간 지위세습과 성취기제*

김화순** · 최봉대***

이 연구는 ‘출신성분과 토대가 사회성분을 결정한다’는 명제가 고난의 행군 이전에 1980년대에 어떻게 수행되었는지를 당시 직장진출을 한 청년들의 사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지위성취모델을 구성하고, 1960년대에 출생한 연령집단(cohort)이 직장진출을 했던 1980년대를 중심으로 청년기의 회고적 조사를 수행하여 당시 북한 청년층이 경험했던 직장진출 및 직업세습, 지위성취기제, 계층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정치신분제에서 지위의 성취가 기본군중과 복잡군중에게 각기 다르게 작동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기본군중은 사회적이동은 상향/수평/하향이동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반면에, 복잡군중에게 사회적이동은 수평/하향적으로만 향한다. 이는 복잡군중에게 ‘토대와 출신성분’과 같은 귀속적 요인이 유리천장으로 작용하는 반면에, 기본군중에게는 업적적 요인에 따라 상향적 사회이동이 허용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주제어: 성분, 정치신분제, 직업세습, 지위, 사회적이동, 지위세습, 지위성취기제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2A03051501). 본 원고는 2020년도 한국사회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초고를 발표한 후 새로 기술한 것으로 당시 토론자인 박영자 박사님의 학문적 조언에 감사드린다.

**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연구교수.

*** 북한대학원대학교 강사.

1. 문제의식

이 연구는 “북한은 왜 아들과 아버지의 직업이 동일한 경우가 그토록 많은가?”라는 직업의 세대 간 이전, 즉 직업세습 현상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지위의 세대 간 세습과정에서 귀속적 요인이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지만,¹⁾ 북한의 경우 직업세습 사례들이 많을 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농민 등 특정계층에게 직업의 세습이 강제되고 있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 아버지가 농민인 경우 그 자녀들은 농민으로 살아가야 하며, 심지어 농민 출신 여성과 도시 남성이 결혼한 경우에는 그 남성이 농촌에 가서 살도록 강제되기까지 하였다. 그 결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 연인을 포기하거나 심지어 이혼이 감행되기도 하였다. 또, 탄광이나 군수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자식들 역시 아버지가 일하는 바로 그 탄광이나 군수공장에 배치되는 현상이 관찰된다. 북한의 당론을 인민대중에게 계몽하는 역할을 해 온 영화나 TV드라마에서도 국가에 의해 강제된 직업세습, 북한식 표현으로는 ‘대를 이어 충성하고 계승하라’²⁾는 메시지가 담긴 장면들이 자주 방영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1) 방하남·김기현, “변화와 세습: 한국 사회의 세대 간 지위세습 및 성취구조,” 『한국사회학』, 제35집 3호(2011), 1쪽.

2) 2002년도에 제작된 영화 <이어가는 참된 삶>에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원에 들어가려는 여자 주인공 광옥은 오빠에게 “내가 순정처럼 평생 농사를 짓길 원한단 말이예요? ... (중략) 농사꾼의 자식은 농사를 짓고 탄부의 자식은 대를 이어 탄부가 되어야 한다는 걸 나한테 납득시키자는 거지요?”라고 절규한다. 2012년도에 제작된 영화 <자기를 바치라>에서는 농장 자녀인 한 여학생은 대학입학 자격시험에 1등을 하고서도 책임비서의 딸에게 밀려나 청진농업대학 추천서를 받고 낙담하여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 한다. 이때 농장원인 아버지는 딸에게 “시대가 좋아서 책임비서네랑 맞서려고 하느냐”라며 “농업대학이 어때서!”라고 으박지른다. 안지영, “제6장 북한

북한 직업세습과 직업배치 정책의 가장 큰 희생자는 농민층과 탄광과 광산 등 기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보인다.³⁾

영화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로부터 부친의 직업이나 일자리를 계승하도록 강요받고 반발하는 청년들이 있는 반면, 대를 이어 부와 권력을 누리는 극소수는 지위의 세습을 통해 특권적 지위를 향유한다. 이처럼 북한에서 직업의 세대 간 이전 현상 나아가 ‘지위의 세습화’ 경향은 농민이나 탄광뿐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광범위하게 관찰되지만, 이러한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한 번도 행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 사회에서 세대 간 직업세습과 지위세습이 이처럼 광범위하게 퍼진 원인을 찾고자 하며 성분제도에 기반한 지위성취 모델(the mechanism of status attainment model)⁴⁾의 기제에 주목하고자 한

의 사회문화 1: 영화로 만나는 청년의 삶,” 진화관 외, 『우리시대를 위한 통일과 평화 1: 김정은시대 북한의 이해』(늘품플러스, 2022), 211쪽.

- 3) 북한 당국은 ‘세습’ 대신 ‘계승’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대를 이어 혁명 계승’, ‘백두혈통 계승’, ‘대를 이어 충성하자’ 등의 정치구호를 구사한다. 세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계승’이나 ‘대를 이어 충성’ 등의 표현이 사용되는 이유는 북한출신주민 김영빈(가명)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대를 호위하는 최고위층 사람들 즉 백두혈통들은 실질적으로 신분세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북한에서 ‘세습’이라는 용어를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그 이유는, 10대 유일사상 원칙에 의해 오직 한 분만을 모시게 되어 있기에 세습관계가 형성되면 국가를 반대하는 세력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는 당국의 시각 때문이다. 전 국가적 차원에서 세습을 반대하며 세습이라는 용어도 사용되지 않으며, 일반 국민들에게 ‘세습’이라는 용어는 금기시된다(2022년 11월 30일, 평양 출신 간부 김영빈).
- 4)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화된 이론을 의미한다. 다양한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진술하고 경험적 검증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일련의 통합된 명제들이라고 보며, 이는 종종 이론적 모델이라고 불린다[노먼 블랙키(Norman Blaikie), 『사회연구의 방법론』, 이기홍 옮김(서울: 한울, 2007; 160~161)] 직업지위 관련하여 가장 널리 알려진

다. 나아가 기제가 터한 ‘성분 중심의 신분제도(Songbun-oriented status system)’의 성격을 추론함으로써 정체된 계층연구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⁵⁾

고난의 행군 이전인 1960~1980년대를 북한 당국 계급정책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1970년 6월까지 핵심/동요/적대의 3계층 51분류 기준이 완성되었고,⁶⁾ 1980년대에는 외국귀화인, 월북자, 북송재일교포 등을 비롯한 전 주민의 주민등록부를 재작성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던 시기였다. 당시 1980년대는 한국에서 억눌려 왔던 이산가족문제가 폭발한 해였다. 1983년부터 한국방송공사의 이산가족찾기 생방송으로 폭발하면서 1985년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으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현실화되기에 이르렀다. 이산가족이 상봉하면서 남

이론적 모델은 위스콘신 모델인데 이것은 실재론적 인식론과 경험주의적 인식론이 결합한 귀납 논리 사용의 특징을 보여 주는 귀납적 연구전략이라고 평가된다(노만 블래키, 위의 책, 2007: 122~124쪽). 한국을 비롯한 시장경제국가에서는 주로 위스콘신 모델에 기반하여 세대 간 지위이전을 연구해 왔다. 그러나, 북한 사회는 시장경제가 아니므로 이 연구에서는 위스콘신 모델을 단지 참고하는 데 그쳤다. 위스콘신 모델에 관한 저술은 Peter M. Blau and Otis Dudley Duncan,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Free Press, 1967) 참고.

5) 이 연구는 단지 지위 성취의 기제 파악에 그치지 않고 고난의 행군 이전의 구 계층제도인 정치신분제라는 구조까지 접근하려는 이유는 북한 계층연구의 장기적 침체 상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북한 사회의 지각변동이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으나, 북한의 계층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향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답보 상태에 있다. 이러한 계층연구의 정체 상황은 고난의 행군 이전인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정치신분제(the political status system) 연구공백으로 인해 시장화 시기와의 계층구조와 종적 비교 대상이 없는 현실에서 일부 기인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정치신분제가 원활히 작동하던 고난의 행군 이전 시기 연구를 통해 북한 계층연구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6)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2016 북한이해』(2016), 288쪽.

북한 사람들은 서로 어떻게 사는지 알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은 북한주민과 외부 사람들과의 연계에 대해 북한 당국의 경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전 주민 조사로 이어졌다. 일련의 조사들이 1990년도 12월까지 주민재등록사업으로 마무리되면서 1991년도에는 20년 만에 북한계층 분류기준이 갱신되면서 기본군중, 복잡군중, 적대분자 잔여세력이라는 3계층 56개 부류가 확정되기에 이른다.⁷⁾ 이 연구는 1980년대~1990년대 초반 시기를 대상으로 하지만, 바로 이 두 번째 분류 기준을 채택하는데, 이 기준은 1993년도에 북한의 사회안전부에서 펴낸 비밀문건인 『주민등록사업참고서』에서 자세하게 나온다. 본 연구의 사례 분석 시 이 참고서를 활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1993년 참고서에 명시된 분류기준이 과거 1970년대 분류기준과 비교하여 정확도가 훨씬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물론 참고서의 삼 계층 외에 백두혈통을 비롯한 최상층이 존재하며 기본군중 내에도 당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핵심계층이 존재하므로 다섯 계층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해, 최상층을 분석에서 제외하고 핵심계층은 기본군중에 포함하여 결과적으로 기본군중과 복잡군중의 두 계층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음을 밝힌다.

이 연구가 겨냥하는 핵심적 발견은 정치신분제하에서 행해진 주민들의 직장진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직업세습 및 지위성취 과정에 대한 관찰을 통해 지위성취모델의 기제(the mechanism of status attainment

7) 이 연구에서 사용한 1993년도에 북한의 사회안전부에서 펴낸 『주민등록사업참고서』에 의한 기본군중, 복잡군중, 적대분자잔여세력으로 구분되는 당국의 계층 분류 자료는 주민등록일꾼들이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료이며 『월간조선』에서 일부 내용이 공개된 바 있다.

model)의 구성요인과 작동 원리를 밝히는 데에 있다. 즉, 출신성분 및 토대(family background and class origin)와 사회성분(social status) 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학력, 군복무 경력, 직업경력으로 대표되는 경력요인(career factors)들이 궁극적으로 종속변수인 사회성분(social status)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위 성취의 기제가 계층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작동되며 정치 신분의 재생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밝히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⁸⁾ 이러한 작업을 통해 직업세습 현상(the phenomenon of occupational hereditary)의 배후에 있는 지위성취 기제의 기능 그리고 고난의 행군 이전의 구 계층제도인 정치신분제에 대한 유의미한 가설들을 추론해 내어 시장화 이후 재계층화 연구에도 기여하고자 하였다.

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1) 북한 계층연구의 동향

사회주의는 계급정책을 통해 자신의 역사적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한다. 해방 직후 북한 당국은 유산계급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혹은 기회로부터 배제하고 무산계급에게는 사회적 상향이동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일제 치하에서 조선민중을 수탈하고 억압했던 지배질서를 역

8) “가추는 추론 또는 사유작용, 특정한 현상이나 사건을 일련의 일반적 관념들이나 개념들로부터 해석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베르트 다네마르크(Berth Danermark) 외, 『새로운 사회과학방법론: 비판적 실재론의 접근』, 이기홍 옮김(서울: 한울, 2004), 337쪽.

전시키고자 하는 계급적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해방 직후인 1945년 이후부터 한국전쟁 이전 시기를 연구한 김재웅(2012, 2020)은 노획문서의 이력서와 평정서를 통해 계급정책 수립 초기에 개인들을 평가한 국가의 계급정책의 원칙과 개인들이 행했던 방어적인 전략적 글쓰기를 정교하게 분석하였다.⁹⁾ 이는 여태까지 북한 연구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개인 중심의 미시사적 접근(micro-history)이라는 점에서 연구사적 가치가 크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에는 “전쟁의 피해상황을 기준으로 한 성분 구분”¹⁰⁾이 최우선으로 떠오르면서, 북한식 계층구조가 주조(鑄造, mold into shapes)되기에 이른다. 김병로(2000)는 한국전쟁 이후 계층구조의 구조과정을 연구한 논문에서¹¹⁾ 북한이 한국전쟁에서 치러야 했던 인적 손실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사상자 수가 총인구의 18%를 차지할 만큼 실로 방대한 것이었고 이로 인해 북한 계층구조의 재주조(再鑄造)화가 이루어졌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은 내연(內燃)하는 적대의식을 피해자(전사자, 피살자)/가해자 구분에 투사하여 더욱 치밀하게 ‘성분 중심의 계층구조’를 구축해 나가기에 이른다. 특히, 부모의 출신성분과 자식의 사회성분을 연계시키는 것을 주축으로 한 ‘성분(成分, sungbun)’

9) 김재웅의 미시사가로서 면목이 드러난 저술은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김재웅, “북한의 계급정책과 계급위계구조의 형성(1945~1950),” 『역사와 현실』, 제85호(한국역사연구회, 2012), 393~433쪽; 김재웅, 『고백하는 사람들: 자서전과 이력서로 본 북한의 해방과 혁명, 1945~1950』(서울: 푸른역사, 2020).

10) 김병로·김성철,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22쪽.

11) 김병로의 논문에 의하면 한국전쟁으로 인한 북한 주민과 병사의 인적 손실의 규모를 175만 명으로 추산한다. 북한 인구의 18%를 차지하는 데에 비하면, 남한의 인적 손실은 5%로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김병로, “한국전쟁의 손실과 북한 계급정책의 변화,” 『통일정책연구』, 제9권 1호(2000), 230쪽.

중심의 계층정책은 부모의 과오 혹은 공적에 대한 상과 벌을 자식에게 대물림하여 대를 이어 갚게 하려는 국가적 의지를 내포한 것이었다. ‘성분’은 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부여된 귀속적 개념인 출신성분과 업적적 개념인 사회성분을 종합한 개념으로,¹²⁾ 이러한 성분 중심의 계층정책은 세대 간 이동을 억제하고 강하게 고착화하는 핵심적 기능을 내장(內藏)한 것이었다.

1958년 12월~1960년 12월에 실시된 중앙당 집중지도사업을 통해 출신성분 구분 작업이 행해진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전국적 규모의 성분조사 작업이 행해지다가 1980년대 들어서면, 김정일의 지시로 ‘광폭정치’가 등장하기에 이른다.¹³⁾ 이 광폭정치는 성분 위주의 차별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한 계층정책이라고 평가되는데, 광폭정치의 정신을 인민대중에게 알리고 구현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2003년까지 복잡군중을 주인공으로 한 10여 편의 영화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졌다. 성분완화정책을 상징하는 대표적 영화로는 〈보증〉(2부작, 1987)¹⁴⁾이 있으며, 영화 〈민족과 운명: 로동계급편〉 등과 TV 연속극 등이 있으며, ‘복잡군중’ 관련 소설이 있다.¹⁵⁾ 안지영·김화순(2020)

12) 김상선·리성희, 『주민등록사업참고서』(평양: 사회안전부출판사, 1993), 118쪽.

13) 북한 출신인 현성일에 의하면, 성분 위주의 차별정책이 후계체제 완성에도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경직된 성분정책의 완화를 시도한 것이라고 전한다. 현성일, “북한인사제도 연구”(미발표 논문), 10쪽; 김병로·김성철,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34쪽에서 간접 인용했다.

14) “보증은 성분정책으로 인한 불이익과 차별의 현장을 묘사하는 작품이다. 이 영화는 과거의 경직된 성분정책에서 탈피하여 현재의 사상을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하에 김정일이 1985~86년경에 지시한 성분완화시책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김병로·김성철,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35쪽.

은 복잡군중을 주인공으로 한 10여 편의 영화와 드라마를 선정하여 북한의 계급정책의 성격과 복잡군중에게 북한 당국이 보내는 메시지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영화에서 국가는 복잡군중에게 포용을 이야기하는 듯하지만 희생을 요구하고, 오직 수령을 통해서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가는 핵심군중, 복잡군중에게 각기 상반된 메시지를 전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며 이는 결국 배제의 경계를 더욱 강화한다.¹⁶⁾ 이 같은 국가의 이중적 계급정책에 대한 안지영의 통찰은 본 연구의 지위성취기제 분석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었다.

2000년대 이후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체제이행과 재계층화 문제는 북한 계층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떠오른다.¹⁷⁾ 최봉대(2008)는 계층분화를 촉진한 중요 매개요인을 ‘비공식적 사회적연결망(informal social network)’이라고 보았다. 즉, 북한의 사회적 불평등체계가 “기존 정치적 신분체계에 의한 불평등체제와 시장화에 추동되는 경제적 불평등체제가 부분적으로 중첩되어 있는 과도기적 양상”을 보이는데, “두 불평등체계가 외견상 분리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밀접하게 연관”¹⁸⁾되어 있다는 것이다. 정은미(2015)는 서울대학교의 북한

15) 전혜란, 『북한 성분분류사업의 변천에 관한 연구』(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16) 안지영·김화순, “배제와 포용: 북한영화 및 드라마를 통해 본 ‘복잡군중’정책,” 『한민족문화연구』, 제72호(2020), 126쪽.

17) 최봉대 “1990년대 말 이후 북한 도시 사적 부문의 시장화와 도시가구의 경제적 계층분화: 개별가구의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의 계층화 매개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11권 2호(2008), 34~36쪽; 이승훈·홍두승,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최봉대,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변화,” 『계층구조와 주민의 변화』(KBS남북교류협력팀 한국방송공사, 2005); 정은미, “북한 중간계층의 결정요인과 특성 북한이탈주민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제7권 2호(2015).

이탈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계층화 과정에서 중간계층 결정 요인에 주목하였는데, 북한 사회에서 중간계층은 아직 형성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¹⁹⁾

2) 연구방법

국가는 “북한 주민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가진 계급적 위치와 사회정치적 경위에 따라 출신성분이 정해진다”²⁰⁾라고 선언한다. 사회안전부의 『주민등록사업참고서』(이하 참고서로 약칭)에 따르면 공민은 태어났을 때부터 귀속적 지위가 부여되며, 귀속적 지위를 표상하는 대표적 요인은 ‘출신성분’과 ‘토대’이다. 『주민등록사업참고서』(사회안전부, 1993)에서 북한 당국이 정의한 용어들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의미에 대해 조작적으로 정의하거나 설명함으로써 북한의 지위성취모델을 구성하는 데 활용할 것이다.

(1) 용어의 정의

성분(songbun, birth origin): “사람의 성분은 그가 출생할 당시의 경제적 조건, 가정의 계급적 토대와 그로부터 받은 영향관계, 본인의 사회정치생활경위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발전의 특수성과 계급관계, 혁명 발전의 매 시기 우리 당이 실시한 계급정책들을 깊이 연구하고 그에 기초하여 정확히 규정하여야 한다.”²¹⁾ 출신성분과 사회성분은 북한 당

18) 최봉대, 위의 글, 34~36쪽.

19) 정은미, “북한 중간계층의 결정요인과 특성 북한이탈주민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20) 김상선·리성희, 『주민등록사업참고서』.

21) 위의 책, 118쪽.

국에서 정의한 개념이다.

출신성분(one's family background and class origin): “출신성분은 본인이 출생한 때로부터 사회적 직업을 가질 때까지 부모가 가지고 있던 직업 가운데서 년한이 가장 오랜 직업에 따라 규정하여야 한다.”²²⁾ 그런데, 출신성분을 기존 연구나 정부책자에서 ‘출생 당시 부모의 직업’이라고 간략하게 소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북한 당국이 정의한 출신성분의 개념은 “사람들의 계급적 토대의 반영인 출신성분은 생산수단과 재산의 소유정도, 착취관계, 생활형편,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에서 취한 입장과 태도, 현재 본인의 사업정형 등”²³⁾까지 포함하는 보다 복합적인 개념이다.

사회성분(social status):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직업 가운데서 년한이 가장 오랜 직업에 따라 규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적대계급의 사회성분은 그가 다른 직업에 종사한 년한이 길다 할지라도 성분규정 지도서의 기준에 따라 해당한 성분을 규정하여야 한다”²⁴⁾라고 되어 있다. 이와 반대로 “노동자 생활을 3년 이상, 군인생활을 3년 이상 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다른 직업을 가졌던 연한에 관계없이 <노동자> 또는 <군인>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²⁵⁾ 이 연구에서 ‘사회성분’

22) 위의 책, 118~119쪽.

23) 김상선·리성희, 『주민등록사업참고서』, 119쪽.

24) 위의 책, 119쪽.

25) 여기서 성분이란 출신성분과 토대, 사회성분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일 뿐 아니라 그가 정권에 대해 취했던 정치적 입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북한에서 계층은 정치적 집단(복잡군중/기본군중/적대잔여분자)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는 반면, 성분은 ① 부모에게 투영된 직업계층: 노동자/사무원/농민을 가리키는

이란 본인의 주된 직업지위와 당적 지위(유급당간부, 무급당간부, 당원, 비당원)가 합해진 개념으로 사회적 지위/지위(social status)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계층: 학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베버의 ‘계층’ 정의²⁶⁾와는 달리, 북한 사회보안부의 『주민등록사업 참고서』에서 정의한 ‘계층’은 “출신 성분과 토대, 사회성분을 모두 포함하며 정권에 대해 취했던 자신의 정치적 입장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참고서에서 북한의 계층은 다시 기본군중, 복잡한 군중, 적대계급 잔여분자의 삼대 계층으로 분류된다. 북한 당국은 계층 분류의 목적을 “평가하려는 대상의 계급적 토대와 사회정치생활경위, 친척 주위환경을 깊이 료해한 데 기초하여 본인의 사업정책을 기본으로 하여 규정하여야 한다”²⁷⁾라고 명시되어 있어 전 인민을 규정하고 평가하여 이에 준하는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북한주민 사례분석을 위해 북한 당국이 규정한 ‘계층’의 정의를 그대로 가져오되, 북한계층을 기본, 복잡, 적대잔여분자의 삼 계층으로 분류한 참고서와는 달리 이 연구는 북한계층을 삼 계층

용어이며, ② 토대: 가족 친척들의 정치적 계층적 성향(복잡/기본/적대잔여분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③ 사회성분: 본인의 직업계층이다.

26) 마르크스는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가 계급 구조를 결정하고, 생산 과정에서의 명령과 복종 관계, 나아가 사회 전체의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형성한다고 보았으며, 계층론의 선구자인 베버는 그는 경제적 요인에 의한 ‘계급’, 명예나 위신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 의한 ‘지위 집단(신분)’, 그리고 정치적 권력의 획득을 지향하는 ‘파당’ 등 계층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제시하였다.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 『현대사회학』(을유문화사, 2006), 김미숙 외 옮김, 255~256쪽.

27) 김상선·리성희, 『주민등록사업참고서』, 11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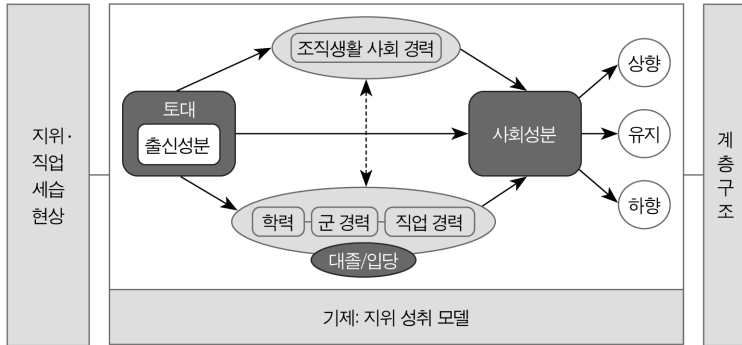
에 최상층, 핵심군층을 더하여 다섯 계층으로 본다. 단, 자료의 한계상 본 연구에서 논의의 대상은 기본/복잡군층으로 국한된다.

지위세습, 직업세습: 세습(世襲)이란 국어사전에 의하면, 한 집안의 재산이나 신분, 직업 따위를 다음 세대에게 대대로 물려주고 물려받는 것을 의미한다. 직업세습(intergenerational occupational succession)이란 세대 간 대를 이어 자신의 부와 동일한 직업계층이나 직종에서 종사하는 행위이며, 지위세습(intergenerational status succession)이란 세대 간 대를 이어 지위나 신분을 물려주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이 연구에서 성분중심의 정치신분제하에서의 ‘지위 세습’이란 ‘출신성분과 사회성분이 동일한 것’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며, 상향이동은 출신성분보다 사회성분의 위치가 높아진 것으로 하향이동은 출신성분보다 사회성분의 위치가 낮아진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 연구에서 ‘직업세습(occupational succession)’은 광의로는 직업계층의 세대 간 이전을 가리키며, 협의로는 동일 직종의 세대 간 이전, 동일 직무/기술의 세대 간 이전이라고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직업세습’이라고 할 때는 협의와 광의의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한다.

(2) 연구 모형: 현상의 파악-기제와 가설 검증-구조와 추론

기존 북한의 계층연구에서 ‘출신성분과 토대가 주민들의 사회성분을 규정한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이 정설로 굳어지면서 군복무 경력을 비롯하여 직업성취 등 개인의 업적적 성취를 반영하는 경력요인들이 상대적으로 간과되거나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 연구는 ‘출신성분과 토대가 사회성분을 결정한다’는 명제 외에 경력가설, 즉 ‘학력, 군복무, 직업경력이 사회성분을 결정한다’를 추가하여 고난의 행군 이

〈그림1〉 현상-기제-구조 분석틀: 지위세습-북한 지위성취 모델-계층구조



전의 1980년대에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당시 직장진출한 청년들의 사례를 통해 검토하였다.²⁸⁾ 이를 위해 〈그림 1〉과 같이 ‘지위세습 현상 - 지위성취모델(기제) - 구조’의 세 개로 구성되는 틀을 분석틀로 제시한다.

〈지위성취 모델〉에서 독립변수는 개인의 출신성분과 토대이고, 매개변수는 학력이나 군복무, 입당, 정치사회 조직생활과 같은 경력요인이며, 종속변수는 사회성분이다.

한 개인은 고등중학교 졸업 이후 군대-직업생활, 즉 첫 직장과 사회적이동을 통해 주된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출신성분과 사회성분 간의 관계가 최소한 수평적이거나 자신의 출신성분보다 우위에 있는 사회성분을 획득하기를 추구한다. ‘출신성분과 토대가 직업지위 및 지

28) 이 명제를 좀 더 자세히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귀속적 지위인 출신성분과 토대는 이후 생애과정의 매 단계, 즉 고등중학교 졸업 이후 청년기의 군 입대, 대학입학, 입당, 첫 직장 입직과 이후 직업이동, 지위의 성취까지 영향을 미치며, 결국 한 사람의 사회성분과 계층을 규정하기에 이른다.

위(사회성분)을 결정한다'고 여기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출신성분이나 토대요인만이 사회성분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매개변수라고 할 수 있는 두 개의 요인군이 있다. ① 정치-조직사회 생활²⁹⁾ 요인군과 ② '학교에서 군대-직장까지'의 경력요인군(학력, 군복무, 입당, 직업경력)이다. 이 요인들도 상호 얹히거나 혹은 개별적으로 힘을 행사하면서 사회성분(본인의 주된 직업지위)을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본 연구에서 연구범위를 제한하여 ① 요인군은 제외하고, ② 요인군만 다룬다.

사회성분(지위) 결정요인 관련 가설들은 다음과 같다.

2-1. 출신성분 및 토대요인이 사회성분을 결정한다.

2-2. 학력, 군복무, 직업경력 등의 경력요인이 사회성분을 결정한다.

본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세 개의 개방형 질의를 해서 현상을 파악한다. ② 두 개의 가설들을 검증한다. ③ 계층구조의 성격을 추론한다.³⁰⁾

29) 여기서 사용하는 조직사회생활 개념은 최사현·박형중의 조직생활사회 개념에서 가져왔음을 밝힌다. 한동호·박형중·최사현, 『북한에서 국가: 사회 관계양상』(서울: 통일연구원, 2018).

30) 이 같은 현상-기제-구조의 틀과 모델을 구성하여 구조와 기제를 정확하게 재현하고 이를 통해 경험적 현상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방식을 역행추론적 연구전략이라고 부른다. 이 연구에서 이를 따르고자 한다. 노먼 블랙키(Norman Blaikie), 『사회연구의 방법론』, 이기홍 옮김(서울: 한울, 2007), 158~164쪽.

현상의 파악(개방형 질의)

1-1. [지위세습 현상] 고난의 행군 이전에 청년기에 ‘학교-군대-직장’으로 진출하는 과정과 지위의 세대 간 이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2. [지위성취 및 사회적 이동] 상향이동/유지/하향이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회적 이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1-3. [계층별 차이] 기본군중과 복잡군중은 학력, 입당, 진출과정, 지위획득 시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기제: 가설의 검증-4장

2-1. 출신성분은 사회성분을 결정한다.

2-2. 학력, 군복무, 직업경력 등의 경력요인은 사회성분을 결정한다.

구조: 추론-5장

3-1. 지위성취모델의 원리

3-2. 계층구조의 성격

3) 자료의 분석: 문헌과 인터뷰자료

그간 1970년에 나온 3계층 51개 부류 구분이 연구와 교육 영역에서 널리 활용되어 왔으나, 이 계층 분류는 국내 정보기관에 의한 편의적 분류라는 견해³¹⁾도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2000년 이후 한국에 입

31) 이러한 견해를 밝힌 이는 『조선일보』에서 기자로 일했던 강철환 씨다. 북한 출신 “姜哲煥 기자(조선일보)는 『종래 한국에서 써 오던 핵심·동요·적대계층 등은 북한 내에서 통용되는 용어가 아니라 국내 정보기관 등에서 편의적으로 사용했던 용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사회안전부, “주민등록사업참고서,” 『월간조선』 (2007),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

〈표 1〉 『주민등록사업 참고서』의 북한 계층 분류: 3계층 56부류

계층	세분류	유형
1. 기본군중 「기본계급 출신으로서 혁명의 매 단계마다 변함없이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 金日成 동지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金正日 동지를 위하여 몸 바쳐 싸워왔으며 앞으로도 金日成-金正日주의 가치 따라 끝까지 견결히 싸워나갈 사람들」	① 「혁명가」와 「혁명가 가족」 및 「혁명가 유가족」, 「영예군인」, 「영예전상자」, 「접견자」, 「영웅」, 「공로자」, 「제대군인」, 「전사자 가족」, 「피살자 가족」, 「사회주의애국희생자 가족」들	12
	②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에서 오랫동안 변함없이 우리 당을 받들어 충실하게 일하면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롯한 핵심군중	
	③ 계급적 토대, 가정주위환경과 사회정치생활이 건실한 노동자, 농민, 병사, 지식인들	4
2. 「복잡한 군중」 「계급적 토대와 사회정치생활경위, 가정주위환경에서 정치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사람」	인민군대입대기피자(병역기피자), 인민군대대령도주자(탈영병), 귀환군인(6·25 당시 귀환한 인민군 포로), 귀환사민(6·25 당시 억류되었다가 귀환한 민간인), 반동단체 가담자, 일제기관 복무자, 해방전사(6·25 당시 인민군의 포로가 된 후 인민군에 입대해 싸운 국군포로), 건설대 제대자(6·25 당시 인민군의 포로가 된 후 건설대에 들어가 노동하다가 제대한 국군포로), 의거임복자(월복자), 10지대 관계자(남로당계 유격대 양성기관이었던 10지대의 상층부에 있던 자), 금강학원 관계자(남로당계 유격대 양성기관이었던 금강학원 상층부에 있던 자), 정치범 교화출소자, 종교인, 월남자 가족, 처단된 자(반혁명 범죄 등을 저질러 처형된 자) 가족, 체포된 자(범죄행위로 체포된 자) 가족, 정치범 교화자 가족, 포로 되었다가 돌아오지 않는 자의 가족, 해외도주자 가족,	18
	지주 가족, 부농 가족, 예속자본가 가족, 친일파 가족, 친미파 가족, 약질 종교인 가족, 종파분자 가족, 종파 연루자 가족, 간첩 가족, 농촌 십장(마름) 가족, 기업가 가족, 상인 가족 등	12
3. 「적대계급잔여분자」 「전복된 착취계급이 잔여분자들과 일본제국주의자들과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민족반역자」	지주, 부농, 예속자본가, 친일파, 친미파, 약질 종교인, 종파 분자, 종파 연루자, 간첩, 농촌 십장, 기업가, 상인 등	12

자료: 김상선·리성희, 『주민등록사업참고서』. 이 자료에 근거하여 필자가 표로 구성.

200707100015(전 주민을 기본군중·복잡한 군중·적대세력잔여분자로 분류). 그는 북한에서 재일귀국동포 출신이었다.

〈표 2〉 연구참가자의 출신성분과 계층

기본군중	젠더	출신성분		
		노동자	사무직(부친 직업)	농민
기본군중	남	일철	삼철(당비서), 민철(당비서)	영철(농장원)
	녀			초록(농장원)
복잡군중	남	고철, 태철, 강철	용철(철도 사무직) 금철(기사장)	
	녀	연노랑, 보라, 민트	주황(교원)	
계		7	5	2

국한 탈북민들의 증언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³²⁾

이제까지 당국의 계층 분류가 북한주민의 일상과 삶의 실재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탈북민 면접과 비교하여 검토한 연구는 부재했다. 이 연구는 북한 사회안전부에서 나온 참고서와 탈북민 면접 자료의 두 가지를 교차하여 활용한다. 참고서와 더불어 이 연구의 중요 자료는 1960년대에 출생한 동일연령집단(cohort)들이 직장진출을 했던 당시 청년시절에 관한 회고적 사례이다. 1980년대를 지목하여 연구의 중요 배경으로 삼은 이유는 한국에 온 탈북민들의 증언자료 활용이 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대한 탈북민들의 청년 시절 직장진출 관련 증언과 관련 공간문헌을 교차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1960년대 출생코호트 청년들이 학교에서 군대를 거쳐 첫

32) 필자들 중 제1 연구자는 2011~2012년에 계층 분류 문항을 만들어 2011년도에 2011년 입국자 60명과 2010년 이후 입국자 200명을 조사한 바 있는데, 탈북주민 중에 북한에 있을 당시 동요계층이나 적대계층이라는 용어를 안다고 답하는 이는 없었다. 이는 국가위부와 인민보안성이 인민들에게 자신들이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없도록 비밀리에 관리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직장진출과 지위를 획득하는 1980년대~1990년대 전반기의 직업 사례들을 분석한다. 이 연구는 1960년대에 출생하고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까지 직장에 진출했던 14명의 연구참가자들의 성분과 계층, 직장진출과 직업직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참가자는 2010~2019년 사이에 북한을 떠난 사람들로 공장기업소에서 직업생활 경험이 많은 사람들로 선정하였으며, 면접자료의 수집은 연구자들이 2020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대학 연구소의 연구실에서 대면 면접을 하거나 혹은 비대면 면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일인당 3시간씩 1~3회씩 총 20회 면담하였다.

3. 1960년대 출생코호트 청년의 직업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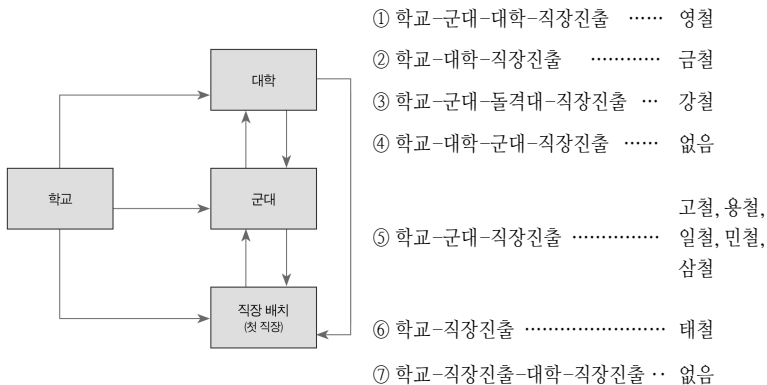
국가는 노동자의 성, 연령, 체질, 기술기능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동력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학 졸업자나 군관 제대자 등과 같은 간부 대상자는 도·시·군당 간부부에서 배치하고 일반 노동자 대상자는 도·시·군 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배치한다. 국가를 대리하여 각 지역 인민위원회의 노동과는 매년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청년 신규인력을 각 지역에 소재한 협동농장 및 지방산업 공장이나 기업소에 공급한다. 국가에 의해 아버지의 직업을 대를 이어 가도록 강제된 직업군에 속한 연구참가자는 농민(영철/남, 초록/여)과 탄광노동자, 군수노동자(보라/여)인데, 연구참가자 중에 탄광노동자는 없다. 고난의 행군 이전 1980년대에 개인과 가족의 일상적 삶과 직업세계에서 사회적 이동과 지위의 세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연구참가자들이 청년기에 ‘학교-군대/대학-직장’으로 진출하는 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1) 직장진출(첫 직장)과 지위획득의 경로

‘첫 직장’은 누구에게나 중요하다. 시장경제 국가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경험하는 ‘첫 직장’은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첫 직장에 취업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지방대와 서울지역 대학출신의 노동시장 성과 비교 등이다. 이와 달리 북한의 경우에 ‘첫 직장’이라는 표현보다 ‘직장진출’이 더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시장경제의 첫 직장의 의미와 북한 사회에서 첫 직장의 의미가 다를 뿐 아니라 간부직을 원하는 청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진출하기 이전에 수차례의 직장진출 체험을 겪기 때문이다.

민족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행정간부라도 되기를 원하는 청년들은 본인과 가족이 원하는 진정한 직장에 진출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거쳐야 하는 과정들이 너무 길고 어렵다. 특히, 민족간부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과 수령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 생산현장

〈그림 2〉 남성의 직장진출과 지위성취경로: ‘학교-군대/대학-직장’



속에서 인민과 생활하며 체험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1980년대 당시는 이런 분위기가 더욱 강했다.

1980년대 청년들은 고등중학교 졸업 이후 군대와 대학, 직장배치라는 세 가지의 진로가 열린다. 남자들은 고등중학교를 17세에 졸업하고 난 후 대부분 군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예외적으로 대학으로 바로 가는 직통생(直通生)³³⁾들도 일부 존재한다. 고등중학교 졸업한 청년들이 획득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자격은 10년이나 되는 군 복무기간을 하자 없이 마치는 일과 당원이 되는 일이다. 남자들이 군대를 가는 주된 이유는 군복무야말로 입당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 청년들에게는 군복무와 입당을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 대학진학을 해서 먼저 대졸자격을 갖추는 것인가 진로의 갈림길에서 고민한다. 1980년대 농촌에서는 직통생이 되기보다 군대에 간 후 대학추천을 받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으로 진출하는 진로를 선호하였다.³⁴⁾ 대학졸업, 입당, 군복무의 세 가지 요건 중에서 입당이 가장 중요하다. 첫 직장에 들어갈 당시 입당, 대졸, 군복무라는 세 가지 기본자격을 갖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진로가 다르다. 사회에 나간 후에 입당 기회를 얻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군대야말로 가장 입당이 용이한 지름길이다.

1960년대에 출생한 기본군중/복잡군중 남자 아홉 명을 중심으로 사례를 보면, ① 군복무를 잘 마치고 입당하여 대학으로 가서 직장진출을

33) 직통생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상급 학교에 진학하여 공부하는 학생을 가리킨다(국립국어원 우리말샘).

34) 농촌청년들은 군대 가는 것을 도시청년보다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군대를 통해 농촌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사례들이 극히 드물지만 존재했기 때문이다.

하는 경로가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고(기본군중 영철), ② 군복무를 건너 뛰고 대학을 나온 후에 직장에서 입당하는 경로도 있다(복잡군중 금철). 그런가 하면 입당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③ 군복무-돌격대-입당-직장으로 가는 경로도 있다(복잡군중 강철). ④ 대학을 먼저 졸업한 후에 군복무를 하는 선직통생 후군복무형도 있다.³⁵⁾ ⑤ 그런가 하면 고등중학교 졸업 후 바로 직장진출을 하는 유형도 있다. ⑥ 학교에서 직장진출을 먼저 한 이후에 역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유형도 드물게 있다.³⁶⁾

가장 최고의 성취는 군복무와 입당, 대학졸업을 모두 성취한 후 직장진출에 이르는 유형이며, 최저의 성취는 입당이나 대졸, 군복무 중 어느 것도 성취하지 못한 채 ‘학교에서 직장으로’ 바로 가는 유형이다. 전자는 간부가 되고, 후자는 평백성으로 한평생을 산다. 이처럼 북한은 남자를 기준으로 볼 때, 입당과 대졸, 군복무라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간부의 첫걸음인 부원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 약 14~15년이다. 연구참가자 14명 중 영철만이 이에 해당하는데 15년이 걸렸다. 만약, 3대혁명소조(3년)나 현장체험(1년)까지 마치고 부원이 되려면 근 15~18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다.³⁷⁾

35) ④, ⑦ 유형은 본 연구참가자에서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타인의 사례를 이야기한 것에서 유추하였다.

36) 이러한 여섯 가지 유형은 남성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여성의 경우는 결혼을 기점으로 진로재분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김화순·안지영·함연희, “첫 직장과 결혼: 북한의 직장진출과 진로분화,” 『통일인문학』, 제84권(2020).

37) 평양 출신 간부인 김영빈에 의하면 1980년대에 대학졸업 후에 3년간 3대혁명 소조 활동을 하는 일이 많았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3대혁명 소조가 현장에서 당권을 행사하는 폐해가 지적되면서 ‘현장체험’으로 바뀌었다고 한다(2022년 11월 30일 제1차 인터뷰, 김영빈).

2) 기본군중 연구참가자의 직장진출

영철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부 후보로서 당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출근하기까지 대학은 물론 군복무까지 최소한 14년 이상의 긴 기간이 소요되었다. 기나긴 시간 동안 아무런 하자 없이 직장에 진출하기란 정말 어렵다. 본 연구에 참가한 1960년대에 출생한 기본군중 다섯 사람들 중 오직 영철만이 이 과정을 유일하게 하자 없이 통과한 사람이었다. 그는 농민계급으로 태어났으나 농촌을 벗어나는 행운을 얻었으며³⁸⁾ 군 추천을 받아 중앙대학에 진학한 후 5년간의 수학 기간을 무사히 마치고 도 행정기관에 배치받았다. 영철은 자신처럼 중앙에 연줄이 없는 사람은 평양 소재 중앙대학이 적절치 않다고 여기고 지방소재 중앙대학으로 하향 지원하였는데, 졸업 후 바로 도 행정기관에 배치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 같은 그의 판단이 현실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농장원 가족의 장녀인 초록이도 “자식 하나만이라도 제발 농촌을 벗어나면 좋겠다”던 엄마의 소원을 이루어 준 성공 사례이다. 그녀는 대학 4년을 마친 후 1980년대 초반 군급 기관의 의사로 배치되어 농촌을 벗어났다. 초록이와 영철 모두 기본군중인 데다 출신성분이 나 토대가 깨끗하였고 무엇보다 ‘학교에서 대학을 거쳐 직장까지의 전과정’을 하자 없이 목표를 향해 매진한 덕분에 원했던 직업지위에 무사히 입직할 수 있었다. 두 농민계층 자녀의 성공사례는 “농민의 자녀는 농민이 되어야 한다”라는 농민 직업세습의 철칙을 넘어 ‘계급혁명’을 이루어 낸, 매우 드문 사례이다.

38) 영철이 농촌을 벗어날 수 있었던 데에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형의 힘이었다. 영철의 형은 당시 국가가 원하는 수산업 분야를 자원하였는데, 이 일로 인해 전 가족이 농촌에서 도시로 옮길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한다.

〈표 3〉 기본군중의 직장진출과정 및 첫 직장

사례	이름	성	학력	군복무	입당	첫 직장 (직장 진출)	주 직위	출신성분	부모-자식 간 직업일치도
1	초록	여	대졸	×	×	의료원	부기	농민	직업계층 불일치
2	영철	남	대졸	○	○	행정기관 간부	행정기관 간부	농민	직업계층 불일치
3	일철	남	고등 중졸	안전부 중간제대 ×	○	노동자	노동자	핵심노동 자 (공로자)	직업계층 일치
4	삼철	남	대학 중퇴	중간 제대×	○	농촌건설대/ 교원	외화별이 기지장	사무원 (당비서)	직업계층 불일치
5	민철	남	고등 중졸	영예군인 제대	×	노동자 (영예군인공장)	노동자	사무원 (당비서)	직업계층 불일치

한편, 핵심노동자이자 공로자의 아들로 태어난 일철은 보안원으로 상향이동을 꿈꾸며 안전부에서 군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군생활 중 자유주의 과오로 인해 제대하면서 진로의 궤도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일철은 평노동자로 돌아온 이후에도 자유주의적 행보를 이어갔다. 그의 행보에서 특이했던 점은 다른 사람들처럼 아버지의 공장이 아니라 연줄을 통해 자기 동네의 작은 압연공장에 배치될 것을 택했다는 사실이다. 통상 노동자 출신 자녀처럼 아버지의 공장으로 가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가 있는 공장을 피한 이유에 대해 그는 “아버지 공장 간부들의 꼴이 너무 보기 싫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³⁹⁾

39) 일철의 처남도 아버지의 공장에 배치된 사례이다. 일철의 처남은 목수 일을 하고 싶어 제재 공장을 가고 싶어 했으나, 인민위원회 노동과는 그를 아버지가 있는 기계공장에 배치하였다. 일철은 만약 그가 담배 한 막대기 정도의 뇌물이라도 고였다

〈표 4〉 복잡군중의 직장진출 및 첫 직장

사례	이름	성	학력	군복무	입당	첫 직장 (직장진출)	주 직위	출신 성분	세분류	부모-자식 간 직업일치도
6	고철	남	군관 학교	○	○	노동자	사무직	사무원 (교사)	월남→ 해외 사망	직업계층 일치
7	금철	남	대졸	×	○	노동자	사무직	노동자 (기술자)	종파 연루자 후손	사업장 일치
8	태철	남	고등중 졸	×	×	노동자 (철도)	노동자	노동자 (철도)	중국 연고	업종일치
9	용철	남	고등중 졸	○	×	노동자 (철도)	노동자	사무원 (철도)	미상	업종일치
10	연 노랑	여	전문 졸	×	×	노동자 (옷제조)	노동자	노동자 (옷제조)	중국 연고	어머니 직종일치
11	강철	남	전문 졸	○*+ 돌격대 (7)	○	노동자 (동일기술)	노동자	사무직 (기술직 교원)	귀환 포로	직종일치
12	주황	여	대졸	×	×	교원	교원	사무원	지주후 손	직업계층 일치
13	보라	여	고등 졸	×	×	노동자 (군수)	노동자	노동자 (군수)	중국 연고	사업장 일치
14	민트	여	고등 졸	×	×	노동자	노동자	노동자	중국연 고	직업계층 일치

주: 음영 표시는 부모와 자식의 직종일치/사업장이 일치한 사례이다. 9명의 복잡군중 중 사례 6이 이에 해당한다(사례 7, 8, 9, 10, 11, 13). 사례 11의 돌격대(7)은 돌격대에 7년간 복무했음을 말한다.

면 자신의 처남이 자신이 원했던 제재 공장에 갈 수 있었을 것이고 목수의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과거를 회상한다. 그러나 1980년대 당시만 해도 제대군인들은 뇌물을 써서 자신이 배치받은 공장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일철의 처남은 목수 일을 하고 싶었던 자신의 소망과는 달리 기계 다루는 일을 하게 되었다.

삼철도 정치군사적으로 중요한 대학에 진학하는 귀한 기회를 얻었지만 중도에 입당도 하지 못한 채 고향에 돌아왔다.⁴⁰⁾ 당비서인 삼철의 부친은 아들이 빨리 입당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아냈는데, 그것은 농촌건설대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삼철이 농촌건설대에 들어간 지 2년 만인 1980년대 후반 즈음에 입당에 성공하였다. 그는 자신이 농촌건설대에서 일했던 시기를 ‘막노동을 하던 시절’이라고 부르는데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농촌건설대에서 일하다가 8년 후인 1990년대 중반에야 비로소 사무직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다섯 명의 기본군중 중 두 사람(초록, 영철)은 농민에서 사무직과 간부로 상향이동한 반면, 나머지 세 사람 즉 당비서의 아들들과 공로자의 아들은 하향이동을 한 결과 기본군중 다섯 명 모두의 출신성분과 사회성분이 바뀌게 되었다.

반면에, 기본군중 연구참가자 중에 부모-자녀 간 직종이나 사업장이 일치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3) 복잡군중 연구참가자의 직업세습

노동력을 충원하기 어려운 철도산업이나 비밀을 엄수해야 하는 군수산업에서는 자녀들이 대를 이어 아버지와 동일한 직종에서 충성해야 한다는 국가적 규범이 암묵적으로 지배한다. 그러나 국가에서 강제하지 않더라도 개인과 가족들이 자발적 의사에 의해 부모와 동일한 기술 직종에서 일하는 직업세습 관행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

40) 연구자 2인은 함께 연구참가자인 삼철을 면접하였는데, 입당도 못하고 왜 중도에 하차했는지 그 경위를 알 수 없어 ‘미확인’으로 기재하였다.

다. 이 연구에서는 복잡군중 9명 중 6명에게서 부친이나 모친과 동일한 직종이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업세습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이처럼 복잡군중에게 직업세습 사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는 개인이나 가족이 정보를 얻거나 연줄을 작동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북한 사회의 폐쇄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복잡군중 연구참가자가 처음 진출한 첫 직장을 살펴보면 부모가 일한 사업장이나 직종/업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철은 국가가 배치한 직장을 떠나 아버지가 일하는 금광의 노동자로 옮겼고, 태철은 아버지가 근무하던 철도에 1981년에 입직하여 일했다. 태철은 자신이 철도노동자가 된 것이 숙명이라고 여겼다.

“철도의 자식은 철도원이 돼야 된다. 대를 이어가며 하라”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으며 자랐으므로, 고등중학교 때부터 군대를 가든지 군대를 못 가면 그냥 철도로 가는 것을 숙명처럼 여겼다. 그러니까 내가 따로 뭐를 하고 싶다. 이런 꿈은 꿀 수도 없고 꿀 이유도 없었다.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태철과 달리 철도사무직의 아들인 용철은 철도에서 일하지 않고 의사가가 되기를 강하게 희망했으나, 결국 군 제대 이후 철도노동자로 들어가게 된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이후 그가 철도에서 일하지 않으면, 현재 사는 주택을 반납해야 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금철은 집에서 가까운 큰 2급 기업소에 평노동자로 배치받았다가 결국 아버지가 기사장으로 있는 공장으로 옮겼으며,⁴¹⁾ 연노랑은 어머니의 의

41) 금철은 자신이 중앙대학 진학시험에서 떨어진 이유를 실력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복제조 일을 이어받아, 전문학교에서 봉제 1급 자격증을 받은 후에 편의봉사사업소로 배치받았다. 강철도 아버지가 평생 해 왔던 운전기사를 이어 운전기사로 일하였고, 인테리 집안 출신의 주황은 사범대학 졸업 후 교원으로 배치되었다. 보라는 아버지가 평생 일해 온 군수공장에 입직하여 부녀가 같은 공장을 1989년부터 함께 다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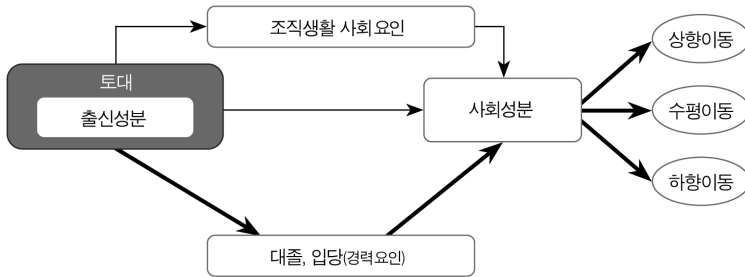
4. 지위성취기제의 계층별 작동과 이원화: 기본군중과 복잡군중

북한주민들이 청년기부터 학교-군대-직장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독립변수는 개인의 출신성분과 토대였지만, 매개변수인 학력이나 군복무, 입당, 정치사회 조직생활과 같은 경력요인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다섯 사례를 분석한 결과, 기본군중은 사회적이동에서 상향, 하향, 수평이동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당비서의 아들들을 제치고 농민의 아들인 영철이 가장 좋은 지위인 도 간부를 차지하였는데 1980년대 당시 기본군중의 경우에 좋은 출신성분이 좋은 지위를 보장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기본군중이라 할지라도 통과 의례 과정(대학-군복무 등)에서 하자가 없을 때만 입당을 시켰고, 자유주의 등의 일탈행위에는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규범이 엄격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출신성분(복잡군중)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금철은 자신의 성적이 시에서 최우등이었기 때문에 중앙대학에 갈 실력이 충분했다고 설명한다. 그의 성적이 시에서 최우등이었기 때문에 중앙대학에 입학할 성적이 충분했다는 것이다. 금철은 공과 계통의 중앙대학에서 떨어진 이후 그의 적성과 거리가 먼 지방대학에 진학하였다.

〈그림 3〉 지위성취기제: 기본군중의 지위결정요인과 경로



기본군중끼리 제한적으로 경쟁하는 경우에는 내부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졌으며, 출신성분과 사회성분 간의 매개요인들 즉 군복무, 대학 졸업 등이 더욱 중요하다. 즉, 가설 2-2 “학력, 군복무, 직업경력 등의 경력요인이 사회성분을 결정한다”가 관철된다.⁴²⁾

반면에 복잡군중의 경우는 어떠한가? 연구참가자 중에서 상향이동에 성공한 사례는 한 명도 없었다. 노동자의 아들은 노동자가 되고, 사무직의 아들이 사무직이 되거나 노동자가 되었다. 수평이동이나 하향이동은 있었으나, 상향이동에 성공한 사례는 없었다. 사례 분석 결과, 복잡군중의 경우에 출신성분이 사회성분을 결정하였음을 의미한

42) 기본군중 연구참가자 사례는 상향과 하향, 수평 이동하는 다양한 진로들이 나타났다. 기본군중의 다섯 사례 중 대학 졸업을 한 사례로는 초록, 영철, 삼철의 세 명이 있다. 초록은 학업 성취가 높아서, 영철은 모범적인 군대생활과 군 추천을 받아 대학에 진학한 이후 도 행정위원회에서 간부로 일했다. 1970~1980년대 당시만 해도 사회주의 규범이 작동되고 있어 안면이 뇌물보다 중요했고, 개인의 학업 실력이나 생활 태도처럼 사회주의 규범에 맞는 개인의 업적이 돈보다는 중요했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삼철은 당비서의 아들로 태어나 고등학교 시절 운 좋게 과에 선발되면서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대학에 진학하였으나 과오로 중퇴한 이후 간부 임용의 길에서 멀어졌다.

다. 1980년대는 1993년 광폭정치(廣幅政治) 선포 이전이나 성분완화정책을 펴기 위해 준비단계로 '보증' 등 복잡군중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를 활발하게 제작했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내세웠던 포용의 명분과는 달리 현실에서 이들의 사회적 상향이동은 허용되지 않았다는 게 본 연구의 중요한 발견이다.

복잡군중 여성인 연노랑의 경우에는 결혼 후 중국 연고자라는 그녀의 출신성분이 남편의 간부 승진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이혼해야 하는 위기에 처하였다. 복잡군중들은 남녀 막론하고 대학진학-군복무 후 입당에서 출신성분과 토대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 대학진학 시 자신의 성적보다 낮은 대학으로 진학하거나 대학 진학을 아예 포기하기도 하였다. 또, 군복무와 입당 시 어려움을 겪었다. 결론적으로 출신성분과 토대를 중시했던 1980년대는 복잡군중 남성들에게 남다른 희생을 요구했고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만 입당이 가능했던 시대였다. 복잡군중 남성 중 세 명은 고난 끝에 입당했으나 세 명은 애초에 입당 포기자였다. 이처럼 정치사회적 생명을 얻으려는 치열한 경쟁의 장에서 여성들은 어떠했을까? 직업지위와 사회성분의 성취를 위한 경쟁은 남성들만의 리그였으며 여성들은 열외의 존재였다.

기본군중 연구참가자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정치신분제하에서도 사회적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⁴³⁾ 기본군중이 하향이동하는 경우는 본인의 학력 부족, 군복무의 하자 등과 같이 개인의 능력

43) 계층 피라미드를 고려할 때 기본군중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 이동에서 부모와 자식 간 수평이동이 많다면, 사회적 이동이 활발하다고 일반화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탈북자는 특별한 사람들일 수 있다. 정치신분제에서 계층 피라미드를 볼 때 승진이 정제된 채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이 문제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및 경력의 하자에 그 원인이 있었다.

기본군중과는 달리 복잡군중의 경우에는 출신성분과 토대가 사회성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토대'요인은 복잡군중에게 있어서는 한 사람의 생애에서 사회성분의 상위 개념인 계층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데 힘을 행사하는 강력한 독립변수로 작용하였으며, 복잡군중이 사회적 상향이동을 할 때 아래로 끌어내리는 출신성분의 덫(trap)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에서 월북자나 납북자, 국가보안법 대상자, 민주화운동 인사 등에게 적용했던 '가족연좌제'와 유사하지만, 전 인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 포괄적이며 적용 범위도 보다 광범위하다. 2022년 현재도 북한에서는 보안, 보위부, 당일꾼 관련 직업에 입직하려는 사람은 직계 8촌, 외가 3촌, 처가까지 조사하여 하자가 없어야 한다. 이는 과거 한국보다 적용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친족연좌제'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두 개의 가설을 살펴본 결과 계층에 따라 사회성분 결정요인이 다르다는 점이 발견된다. 복잡군중의 경우는 귀속적 지위인 출신성분이 사회성분을 결정했다. 그러나, 기본군중의 경우는 개인의 업적적 지위인 경력요인들이 사회성분을 결정하였다. 이는 기본군중들의 경쟁이 복잡군중을 배제한 채 기본군중만의 제한경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5. 계층차별적 지위 성취구조에 나타난 정치신분제의 성격

북한의 정치신분제는 계층차별적 지위 성취구조를 기제로 하여 계층을 재생산한다. 기본군중은 개인의 노력과 업적에 의해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고, 복잡군중의 경우에는 귀속적 지위인 출신성분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한다. 이러한 계층 차별적 정책의 결과로서 기본군중은 충성을 다해 경쟁하고 업적적 성취에 의해 지위를 얻지만, 복잡군중은 출신성분의 벽에 막히면서 좌절감을 경험하고 무기력해진다. 1980년대 정치신분제는 최상층, 핵심군중, 기본군중, 복잡군중, 적대잔여분자의 다섯 개의 신분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 중 본 연구에서는 핵심군중을 포함한 기본군중과 복잡군중만을 통해 정치신분제를 조명하였다.

1) 기본군중의 성취구조: 업적적 지위성취

(1) 계급혁명을 이룬 농민의 아들과 딸

기본군중 사례분석 결과, 농민계급에게 강제된 국가의 속박을 벗어나 '계급혁명'을 이루어 낸 초록이와 영철의 사례는 큰 함의를 준다. 두 사람의 경우, 출신성분은 농민이었지만 사회성분은 사무직(부기, 행정일꾼)으로 상향이동 하였다. 이는 그들이 국가가 정한 규범을 지키며 규율화에 순종하며 살아간 삶에 대한 대가이기도 하였으나,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가 보기에 그들은 기본군중으로 깨끗한 토대와 출신성분을 지닌 순결한 자들이며 국가가 정한 계층기준에서 상향하기에 합당한 자들이었기 때문이었다. 1960년대에 출생한 두 남녀의 성공적인 상향이동은 국가의 규범에 따름으로써 실현되었으며 당일꾼인 혈연의 비공식적 연줄을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성취였다.⁴⁴⁾

44) 초록의 경우 외가 쪽 당일꾼인 친척의 도움으로 입직, 승진, 전직 등이 가능했다고 구술하였다. 그러나, 영철의 경우 어떤 공식/비공식 연줄의 지원을 동원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2) 과오로 몰락한 당비서의 아들들

이에 반해 두 번째 유형은 기본군중 중 핵심 군중인 당 비서의 아들로 하향이동한 민철과 삼철의 사례이다. 노동자의 아들인 민철이 하향을 하였던 이유는 군에서의 부상으로 인해 장애를 얻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장벽에 직면하였기 때문이지만, 두 번째 유급 당비서의 아들인 삼철은 과오(혹은 부상) 제대로 인한 것이었다. 삼철은 교사로 입직하였으나 당일꾼으로서 일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삼철은 밑수라는 이탈행위를 하였기에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두 사례는 기본 군중 내부에서도 핵심군중으로 어떤 요인에 의해 당비서의 자식이라는 남보다 우월한 출신성분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우월한 사회성분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를 보여 준다.

일철의 집안 이야기는 한 가족 내에서 개인들의 상향이동과 하향이동의 부침이 동시에 일어나는 중요한 사례이다. 일철의 아버지는 고아로서 평생 노동자로서 일하였다. 그는 북한 사회에서 자신의 아들과 딸이 보안 관련 일꾼으로서 혹은 사무직으로 상향이동 하는 기쁨을 맛보았다. 그러나, 일철 자신은 자유주의적 과오로 인하여 노동자로서 이 공장 저 공장을 평노동자로 떠돌면서 평생 살아가게 되었으며 형제들과 달리 하향이동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처럼 동일한 계층인 기본군중 출신 가족 내에서도 개인의 업적, 즉 매개요인인 학업과 군복무 경력, 당원 지위의 성취에 따라 사회적 이동 방향이 엇갈림을 보여 준다.

이처럼 기본군중인 다섯 사례의 직업지위의 성취에 나타난 부침은 1980년대 북한 직업 사회에서 1960년대 출생코호트가 입직이후 경험했던 사회적 이동의 양상을 보여 준다. 출신성분이 첫 출발 시 사회성분의 기본 방향을 규정하지만,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기본군중 내에서도 학력과 군복무 경력, 당원, 직업경력과 같은 ‘개인

의 업적과 성취도'가 상향이동이나, 수평이동이나, 하향이동이나 하는 이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며 연구참가자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개인의 능력요인과 업적요인이 결국 그들의 사회성분(직업 지위)을 규정하는 결정요인이다. 이들에게서 지위의 세습은 보이지 않았다.

2) 복잡군중의 지위성취 구조: 지워지지 않는 낙인

나의 마음은 항상 짐을 지고 사니까 행복하지 못하다(금철 복잡군중 남성/사무원).

복잡군중 출신의 연구참가자는 여자 4명, 남자 5명으로 총 9명인데, 복잡군중 내에서 다시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 중국연고자가 4명으로 가장 많고(태철, 연노랑, 보라, 민트) 월남자 가족(고철), 귀환포로 가족(강철), 지주 가족(주황), 종파 연루자 가족(금철)이 각각 1명씩이며 용철은 자신의 가족이 어떤 유형의 복잡군중인지 비밀로 하였다.⁴⁵⁾ 복잡군중이 간부직에 올라가려고 할 때, 부딪히는 현실을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는 연노랑과 금철의 사례이다.

첫째는 복잡군중인 중국 연고자의 자녀인 여성 연노랑의 사례이다. 그녀는 당초에 본인이 간부로 승진하겠다는 꿈을 꾸지 않았다. 중국

45) 복잡군중 연구참가자의 사회성분은 사무직 2명(고철, 주황)이고, 나머지 7명은 모두 노동자이다. 고철의 아버지는 교원으로 사무직이었으나 할아버지가 행방불명이라 고철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도 입당조차 하지 못한 복잡군중이었다. 천행으로 그의 할아버지를 사망자라고 문건을 고친 이후에야 그는 군관으로 자신의 진로를 정할 수 있었다.

세관에서 좋은 지위에 있었던 연노랑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발발 후에 조국에 들어와 충을 든 노병이었으나 중국 연고자라는 이유로 복잡군중으로 분류되었다.⁴⁶⁾ 그러기에 더욱 연노랑은 간부의 조건을 갖춘 남자와 결혼하기를 열망하였다. 연애 끝에 남자 측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기에 성공하였으나, 복잡군중의 내력으로 인해 남편의 승진을 막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기사장이었던 연노랑의 남편은 전체 사업소의장이 되기 위해 중앙당의 비준을 받는 과정에서 복잡군중 여성과 결혼한 토대가 문제시되었고 결국 부하에게 자리를 넘기고 밀려났다. 이 일은 광폭정치가 천명된 이후 1998년에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당시 그녀는 이혼까지 생각하였다고 한다. 남편은 연노랑을 원망하는 대신 국가를 소리 없이 원망하였고 결국 연노랑의 남편은 몇 년 후 다른 직업을 찾아 사업소를 떠났다.⁴⁷⁾

둘째, 기업소의 간부직에서 밀려난 종파 출신 복잡군중인 금철의 사례이다.⁴⁸⁾ 그의 공식 직업 경력에서 마지막으로 한 일은 시 차원의 중

46) 연노랑의 기억 속 아버지는 밤에는 항상 자지 않고 몰래 글을 쓰곤 하였다. 아버지는 중국에 있을 당시 혁명을 방조하는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살았다는 이유로 복잡군중으로 분류되었다, 연노랑의 아버지는 이 문제를 당에 신소(伸訴)하였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곱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데 이를 구하지 못하였다. 그리던 조국에 돌아왔으나 그는 몸 바쳐 혁명을 방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연고라는 사실 하나로 입당조차 할 수 없는 신분이 되어 버린 채 빛을 보지 못하였다. 연노랑이 아버지가 쓴 신소 편지를 몰래 보았을 때의 나이는 14세였다. 연노랑은 편지를 본 후에야 아버지가 왜 항상 우울해했는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47) 연노랑 가족의 10년 후 후기이다. 연노랑의 남편은 탈북하는 조카들을 도왔다는 혐의로 교화소로 간 후 가족과 소식이 끊겼으며 그 후 연노랑은 탈북하여 한국에 입국하였다.

48) 금철은 고난의 행군 시 러시아에서 벌어들인 돈을 공장 노동자의 식량을 사는 데 넣어 공장을 활성화했고, 이러한 공으로 결국 당원이 되었다. 그러나, 금철의 누나가

요 사업을 맡아 신설 조직의 전체 체계를 잡고 그 사업을 안착시키는 일이었다. 그는 부기로서 사업소의 핵심으로 일해 왔기에 자신이 사업소에서 간부로 정년까지 일할 것으로 알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초기 어려웠던 3년이 지나 사업이 안착되자 당비서는 그를 불러 조심스레 “자재를 다루는 노동자로 일하면 안 되겠냐”라고 물었다. 금철은 그 이후 사업소에 나가지 않았으며 적만 돈 채 일하는 노동자가 되었다.⁴⁹⁾

간부로 승진하는 가도에서 복잡군중이라는 이력으로 인해 추락한 두 개의 사례는 복잡군중에게 존재하는 유리천장의 현실을 보여 준다. 복잡군중은 갖은 노력으로 조직에 기여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출신성분은 언제나 차별받는 근원으로 출신성분의 덫(family background trap)⁵⁰⁾이다. 그러나 복잡군중 여성은 중앙당의 비준이 필요한 간부까지 승진할 가능성이 있는 간부후보와는 결혼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녀의 출신성분은 언젠가 남편의 출세를 가로막는 재앙이 될 수 있다.

강철의 사례는 복잡군중으로 분류 시에 긍정적 경력과 부정적 경력

탈북하고 이 사실을 당국에서 파악하면서 그의 종파 연루자이자 탈북자 가족으로서 복잡군중이라는 낙인이 더욱 뚜렷해졌다.

49) 결국 이 사건은 금철이 탈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금철은 공장에 적만 돈 채 연유를 팔고 사는 장사를 해서 살아갔는데, 그는 8.3비를 내지 않는 8.3노동자가 되었다. 사업소에서도 금철의 그간의 기여를 인정하여 그에게 8.3비를 내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50) 본 연구에서는 출신성분이 개인이 추구하는 경력지향성에 돌출하는 함정 즉 덫이 된다는 의미에서 샤인(Schein)이 말한 경력의 닻(career anchors)을 빗대어 출신성분의 덫(family background trap)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샤인이 말한 경력의 닻이란 한 개인이 경력을 추구할 때 일정한 지향점을 지닌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Schein, E. H. “Career anchors revisited: Implications for career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Academy of Management Perspectives*, Vol.10, No.4(1996), pp.80~88.

이 중첩될 때, 부정적 경력을 우선시하는 북한 당국의 사고방식을 보여 주는 사례이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강철의 아버지는 18세에 한국전쟁에 나갔다가 포로가 되었다가 귀환한 이력이 있었다. 원래 강철의 집안은 중국에서 혁명운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했으며, 작은 할아버지는 혁명열사로 인정받아 보안 계통으로 진출하였으며, 강철의 친할아버지도 애국열사였으나 놀랍게도 이 같은 가문의 이력조차 강철의 아버지가 귀환포로라는 이유로 복잡군중으로 분류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일단 복잡군중으로 분류된 이상, 포기야말로 현명한 진로 전략일 수 있다. 태철이 말하듯 “꿈을 꿀 필요가 없다. 어차피 되지 않으니까”. 날개를 퍼터라도 복잡군중은 일정한 높이 내에서만 날아야 한다. 북한 사회에서 복잡군중은 무기력해지도록 학습된다.

6. 본 연구의 주요 발견과 후속 연구의 과제

직업세습 현상이 보편화된 북한 사회의 특징에 착안한 이 연구는 1980년대 정치신분사회에서 복잡군중의 사회적 상향이동을 억압하는 지위성취의 기제를 밝힘으로써 북한 정치신분제의 계층구조에서 지위를 대물림하는 방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출신성분과 토대가 사회성분을 결정한다’는 가설과 ‘경력요인이 사회성분을 결정한다’는 대립가설을 만들어 고난의 행군 이전에는 세대 간 이전이 어떻게 수행되었는지를 당시 직장진출 한 청년들의 사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지위성취모형을 구성하였고, 1960년대에 출생한 연령집단(cohort)이 직장진출을 했던 1980년대를 중심으로 청년기의 회고적 조사를 수

행하여 당시 북한청년층이 경험했던 직업생활 당시의 직장진출과 지위성취기제 그리고 정치신분제 간의 관계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발견점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하고 후속연구의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이 연구는 북한 정치신분제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결정되고 구성되는지를 밝혔다. 지위성취모델은 출신성분 및 토대와 경력요인, 조직생활사회요인으로 구성되고, 세 요인군은 사회성분(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발견은 정치신분제에서 직업지위의 성취가 기본군중과 복잡군중에게 각기 다르게 작동되고 있는 사실을 밝혔다는 점에 있다. 복잡군중에게 '토대와 출신성분'과 같은 귀속적 요인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한 반면에, 기본군중에게는 개인의 능력이나 성실성과 같은 업적적 요인이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 기본군중은 상향/수평/하향이동으로 다양하게 사회적 이동을 한다. 반면에, 복잡군중은 수평/하향적으로 사회적 이동을 한다. 이러한 지위성취기제의 작동원리는 기본군중에게는 지위의 상향이동을 위해 충성을 다하도록 경쟁을 촉발시키는 반면, 복잡군중이 당간부나 사법보안기관 간부와 같은 권력층이 되지 못하도록 배제시킨다.

단, 본 연구에서 지위성취모델에서 조직사회생활 요인이 지위성취(사회성분)에 개입하는 방식이나 영향력까지는 다루지 못하였다. 이를 후속 연구에서 밝힌다면 지위성취모델이 보다 정교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직업세습은 국가의 강제만이 아니라 개인의 자발적 선택으로도 행해지고 있었다. 1980년대 북한에서 직업 세습은 농민, 탄광자녀들에게는 국가가 강력한 규범과 물리력을 가지고 집행하였지만, 군수나 철도 등 특수업종에서는 관행화된 형태로 시행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 발견한 이외의 사실은 복잡군중에게 직업세습 현상이 특히 두

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자원이 결핍된 복잡군중들
에게 직업세습이 많이 나타난 이유로는 아버지가 보유한 정보나 기술,
인맥을 자녀가 활용할 수 있다는 직업세습의 장점과 더불어 하향이동
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안정 희구 심리가 합해지면서 아버지의 직
업을 잇는 직업세습이 성행하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셋째, 본 연구결과는 1990년대 광폭정치의 등장을 설명하고 시장화
이후 재계층화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주요한 명제를 제시한다. 이른바
“간부의 자식은 간부가 되고, 노동자의 자식은 노동자가 된다”라는 명
제는 타당한가? 사례분석에 의하면 노동자의 아들이 대체로 노동자가
되었지만 간부의 자식이라고 해서 간부직이 보장되지는 않았다. 본 연
구결과는 “복잡군중의 자녀는 복잡군중으로 대물림된다”라는 명제를
지지한다. 그렇지만, “기본군중의 자녀는 기본군중이 된다”라는 명제
는 성립하지 않는다. 기본군중은 언제든지 복잡군중으로 쉽게 전락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만약 범죄행위나 탈북 등 범죄행위에 연
루되는 경우 연좌제에 의해 기본군중은 그 자신뿐 아니라 토대의 범
위에 속하는 친족 8촌과 외가 3촌, 처가까지를 포함하여 일가친척이
일거에 복잡군중으로 전락할 수 있다. 토대는 ‘친족연좌제’의 근원적
규정으로 작용한다.⁵¹⁾

51) 한국에서 월북, 납북, 민주인사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던 ‘가족연좌제’와 유사한 개
념이지만, 전 인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 포괄적이며 2022년 현재도 보안,
보위부, 당일꾼 관련 직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직계 8촌, 외가 3촌, 처가까지 대상
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를 친족연좌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좌제와 보
안법 관련하여 납북을 비교함으로써 분단 역사를 딛고 한반도 차원에서 극복하기
위한 후속연구들이 필요하다. 한국의 연좌제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은재·김
성철, “연좌제 피해자들의 국가폭력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끝없는 도망자로 살아
남기,” 『비판사회정책』, 제51호(2016); 여현철, “국가폭력에 의한 연좌제 피해사

1980년대의 이 같은 계층적 상황에 대한 연구결과는 두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1985년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으로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현실화되고 복잡군중의 수가 늘어나는 조건하에서 복잡군중의 수가 늘어날수록 새로 집권할 김정일 정권에 부담이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1992년에 광폭정치의 등장 배경과 본질을 설명한다. 남북이산가족 상봉으로 표출된 남북관계의 변화가 북한 계층정책과 지위성취기제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⁵²⁾ 둘째, ‘복잡군중의 자녀는 대를 이어 복잡군중이 된다’는 명제는 시장화 이후 계층연구에 시사점을 준다. 시장화 이후 복잡군중을 중심으로 계층이동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면, 재계층화 경로를 찾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이 연구의 한계는 연구자의 직접 인터뷰가 가능했던 탈북민 유형이 기본군중과 복잡군중에만 한정되었기에 백두혈통을 비롯한 특권계층과 적대잔여분자들을 포함하지 못하여 전 계층적 접근을 하지 못하였다는 데에 있다. 이번 연구에서 기본군중들에게서 직업세습이나 지위세습의 사례를 찾지 못하였는데, 간부층의 직업세습과 지위세습 현상에 대해서는 향후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레분석: 전시 남북자가족의 피해경험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제21집 1호 (2018); 이철호, “장치로서의 연좌제: 1980년대 이문열의 초기단편과 ‘중산층’ 표상,” 『현대문학의 연구』, 제56호(2015). 문학으로는 박완서의 작품이 대표작이다. 박완서, “부처님근처,” 『박완서단편소설전집 1: 어떤 나들이』(문학동네, 1999).

52) “광폭정치는 1980년대 후반 김정일의 자질을 부각시키기 위해 주민교양 등 사상학습에서 내부적으로만 거론되다가 1993년 1월 28일 자 『노동신문』을 통해 김정일의 통치방식을 인덕정치와 광폭정치로 규정한 이후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통일부 북한지식사전, <http://ko.nkinfo.wikidok.net/wp-d/58c7b4060a4594f804a6933f/View>.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 나타난 복잡군중의 사례들은 북한에서 전쟁이 남긴 부역자 처벌과 친족연좌제의 역사가 국가의 계층정책으로 구조화되면서 한반도의 구성원들에게 상흔을 어떻게 대물림해 왔는지를 보여 주는 중요한 민중사적 사례들임을 언급하고자 한다. 한국 역시 민간인 학살, 특히 부역자 처벌이 민간인 사찰과 연좌제로 전이되어 온 역사를 성찰하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바로 잡기까지 지난한 실천이 있었다. 한반도 사람들의 갈라진 마음을 잇고 분단 극복의 길을 열어가기 위한 작업의 하나로 친족연좌제를 주제로 남북을 비교하고 나아가 ‘한반도 역사’ 전체를 거시사적 시각에서 조명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접수: 11월 14일 / 수정: 12월 6일 / 채택: 12월 12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김상산·리성희, 『주민등록사업참고서』(평양: 사회안전부출판사, 1993).

2. 국내 자료

1) 단행본

기든스, 앤서니(Anthony Giddens), 『현대사회학』, 김미숙 외 옮김(서울: 을유문화사, 2006).

김병로·김성철, 『북한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김재웅, 『고백하는 사람들: 자서전과 이력서로 본 북한의 해방과 혁명, 1945~1950』(서울: 푸른역사, 2020).

김재웅, 『북한 체제의 기원: 인민 위의 계급, 계급 위의 국가』(서울: 역사비평사, 2018).

김재윤·장경섭 엮음, 『변혁기 사회주의와 계급·계층』(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다네마르크, 베르트(Berth Danermark)·메트 엑스트롬(Mats Ekstrom)·리젤로트 야콥센(Liselotte Jakobsen)·얀 카를슨(Jan Ch. Karlsson), 『새로운 사회과학방법론: 비판적 실재론의 접근』, 이기홍 옮김(서울: 한울, 2004).

박완서, “부처님 근처,” 『박완서단편소설전집 1: 어떤 나들이』(서울: 문학동네, 1999).

블래키, 노먼(Norman Blaikie), 『사회연구의 방법론』, 이기홍 옮김(서울: 한울, 2007).

이승훈·홍두승,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2016 북한이해』(서울, 국립통일교육원, 2016).

2) 논문

- 김은재·김성천, “연좌제 피해자들의 국가폭력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끝없는 도망자로 살아남기,” 『비판사회정책』, 제51호(2016).
- 김재웅, “북한의 계급정책과 계급위계구조의 형성(1945~1950),” 『역사와 현실』, 제85호(2012).
- 김화순·안지영·함연희, “첫 직장과 결혼: 북한 여성의 직장진출과 진로분화,” 『통일인문학』, 제84호(2020).
- 방하남·김기현 “변화와 세습: 한국사회의 세대간 지위세습 및 성취구조,” 『한국사회학』, 제35집 3호(2011).
- 북한정보포탈, <https://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
- 안지영, “제6장 북한의 사회문화 1: 영화로 만나는 청년의 삶,” 진희관 외, 『우리시대를 위한 통일과 평화 1: 김정은시대 북한의 이해』(서울: 늘품플러스, 2022).
- 안지영·김화순, “배제와 포용: 북한영화 및 드라마를 통해 본 ‘복잡군중’정책,” 『한민족문화연구』, 제72호(2020).
- 여현철, “국가폭력에 의한 연좌제 피해사례분석: 전시 납북자가족의 피해경험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제21집 1호(2018).
- 이철호, “장치로서의 연좌제: 1980년대 이문열의 초기단편과 ‘중산층’ 표상,” 『현대문학의 연구』, 제56호(2015).
- 전혜란, 『북한 성분분류사업의 변천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논문(2011).
- 정은미, “북한 중간계층의 결정요인과 특성: 북한이탈주민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제7권 2호(2015).
- 최봉대, “1990년대 말 이후 북한 도시 사적 부문의 시장화와 도시가구의 경제적 계층분화: 개별가구의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의 계층화 매개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11권 2호(2008).
- _____,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변화,” 『계층구조와 주민의 변화』(KBS남북교류협력팀 한국방송공사, 2005).

3) 기타 자료

통일부 북한지식사전, <http://ko.nkinfo.wikidok.net/wp-d/58c7b4060a4594f804a6933f/View>.

네이버 지식 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870553&cid=43142&categoryId=43142>.

3. 국외 자료

1) 단행본

Blau, Peter M. and Duncan, Otis Dudley,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Free Press, 1967).

Schein, Edgar, "Career anchors revisited: Implications for career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Academy of Management Perspectives*, Vol.10, Issue.4(1996).

Political Class System and Intergenerational Status Succession in 1980s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echanism of Status Attainment

Kim, Whasoon (Sungkonghoe University) ·

Choi, Bong Da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This study examines how one's family background and class origin determined his/her social status by analyzing the job careers of 14 North Korean youth who changed jobs after they got their first jobs in the 1980s. To this end, a retrospective survey of the then young people who were born in the 1960s was conducted and the relationship among the workplace, job status achievement, and their 'class experiences' was analyzed. In view of the *Songbun* socio-political classification system, a status attainment-social mobility model which relates to the family background and class origin is constructed. The study finds that the mechanism of status attainment in the political class system works differently for the basic masses and the complex masses. The job trajectories of the basic masses show upward/horizontal/downward mobilities, whereas the mobilities of the complex masses are only

horizontal — or downward — directed. Thus, ascriptive factors such as family background and class origin work as insurmountable barriers for the complex masses and an upward social mobility is allowed for the basic masses with some achievement factors. This seems to be related to the prominence of the occupational hereditary tendencies in the complex masses. This shows that the dual class discrimination policy operated in 1980s North Korea.

Keywords: Songbun(birth origin), political class system, occupational hereditary succession, status, social mobility, inter-generational status succession, mechanism of status attainment